

상호문화교육을 위한 문학교육의 방법론 연구*

-다국적의 구비문학 자료를 바탕으로-

오정미(인하대학교)

<Abstract>

Oh, Jungmi. 2021. A Study on the Methodology of Literature Education for Intercultural Education -Based on the multinational oral literature. *The language and Culture* 17-1: 109-129.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a methodology for systematic literature education in intercultural education with defining the meaning of literary education in intercultural education. Also the standard selection of literary works in intercultural education with multinational oral literature was discussed and then educational contents and application plans with the selected literary work were suggested. In this study, the methodology based on multinational oral literature such as folktale, proverbs and folk beliefs was considered because the unique literature of each ethnic group along with a universal culture is dissolved together in multinational oral literature. Also there are extensive oral literary works which have been studied through previous research projects. This researcher has investigated the multinational oral literature of immigrants residing in Korea, and 1,493 multinational oral literature have been collected. Hence multinational oral literature is supposed to be most effective and practical research to establish a literary education methodology in intercultural education. To establish the methodology, the selection criteria, educational contents and application plans of literature were discussed.

The criteria for selecting literary works is whether they have a common subject, theme and narrative. After selecting literary works, each literary work was compared. Through comparison of selected works, the culture of one's own country is reminded and other cultures are studied. For effective education to select the content, each country's value culture, natural culture, living culture and historical culture were considered. Through the educational contents,

students will learn empathy and respect for other cultures. The criteria for selection of literatures, educational content and application plan established in this study will be a methodology of literature education that can be applied not only to multinational oral literature, but also to other literature education for intercultural education. (INHA University)

Keywords: Intercultural Education(상호문화교육), Literature Education(문학교육), Literature Works(문학작품), methodology(방법론), Oral Literature(구비문학), Tale(설화), Folk belief(민간신앙), Proverb(속담)

1. 서론

‘상호성’ 혹은 ‘간문화성’이라는 어휘를 바탕으로 현재 새롭게 모색되는 교육이 있다. 그것은 상호문화교육으로, 몇 해 전까지도 다문화교육이 다문화사회를 대표하는 교육이었다면 최근 몇 년 사이에 유럽의 상호문화교육이 다문화사회에서의 중요한 교육 방향으로 대두되고 있다. 다문화사회 초기에는 동화주의에 입각한 다문화교육, 즉 한국문화에 이주민을 흡수시키고자 한 일종의 융광로 형태의 다문화교육 방향이었다면 차츰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동화 대신 각 민족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샬러드 볼 형태의 통합을 바탕으로 한 다문화교육이 교육의 중심 방향이 되었다.

그러나 통합을 바탕으로 한 다문화교육이 끝이 아니었다. 통합을 바탕으로 한 다문화교육에서 멈추지 않고 다시 유럽의 이론을 기반으로 한 상호문화교육이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서 소개되었고¹⁾ 교육이념과 목표가 한국의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 2020S1A5B5A16082870).

1) 유럽의 상호문화의 이론을 주도적으로 소개하고 정리한 연구자는 장한업이다. 장한업은 2009년부터 유럽의 상호문화교육에 대하여 검토한 후 한국에 전달하는 상호문화교육적 의미에 대한 연구를 다수 발표하였다. 최근의 논문과 저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2015년에 「뒤브와(R.D. Dubois)의 "상호문화교육"에 대한 현대적 조명」, 2016년에 「상호문화교육의 철학적 기반에 대한 고찰 - 상호주관성과 상호문화성을 중심으로 -」, 2019년에 「문화다양성 관리 모형으로서의 상호문화교육 실태 비교 분석」, 가장 최근인 2020년에 「한국어교육과 상호 문화 교육: 연속과 확장」이 있다. 저서에는 번역본을 포함하여 『

다문화사회에 적합하다는 사실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현재 상호문화교육이 한국의 다문화사회를 위한 혁신적인 교육의 방향으로서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교육 방향의 변화는 이주민과 정주민을 대상으로 한 문화교육 차원의 문학교육에서도 고스란히 확인할 수 있다. 다문화사회 초기, 동화주의에 입각한 다문화교육에서 문학은 한국문화를 일방적으로 소개하기 위한 텍스트였다.²⁾ 학습자는 이주민이었고, 한국의 문학작품은 이주민에게 한국의 문화, 특히, 한국의 효와 열녀문화와 같은 전통문화를 학습하시키는 텍스트였다. 동화에 이어 통합을 바탕으로 한 다문화교육으로 넘어가면서부터 한국 문학과 함께 다국적의 문학도 소개하는 변화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주민과 정주민 모두를 학습자로 대상화한 통합을 지향한 문학연구도 수행되었다.³⁾ 문학 텍스트의 변화처럼 학습자도 이주민과 정주민이 함께 교육의 대

유럽의 상호문화교육(2010), 『상호문화 이해하기(2011)』, 『상호문화: 학교의 원칙과 현실(2013)』, 『이제는 상호문화교육이다(2014): 다문화사회의 교육적 대안』이 있다. 이외에도 여러 연구자들을 통해 상호문화교육과 관련한 많은 논문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2020년도 한해에 본 연구와 관련한 상호문화교육 연구는 다음과 같다. 정기섭의 「독일 학교에서 상호문화교육의 실행원칙과 실천사례」, 오정미의 「상호문화교육을 위한 아시아 설화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이해 : 베트남 설화를 중심으로」, 김정우의 「상호문화적 관점에서 본 한국문화교육의 방향-문학작품 번역과 해석의 경험을 중심으로」, 고경민의 「동화를 활용한 상호문화 감수성 교육 방안 연구 -유학생 대상의 플립드 러닝 방식을 중심으로」 등이 있다.

- 2) 동화를 바탕으로 한 다문화교육에서의 문학교육 연구는 다음과 같다. 우선, 설화로 문화교육의 가능성과 방향을 제시한 이성희(1999)의 「설화를 통한 한국어 문화 교육 방안」가 있다. 이 연구에서 설화를 통해 한국문화를 교육할 수 있는 구체적 방향이 제시되었고, 이성희 연구를 필두로 한국 설화로 한국문화교육을 하는 연구들이 2000년대 초반에 지속적으로 발표되었다. 안미영(2008)은 「한국어 교육에서 설화 문학을 활용한 문화 교육: '선녀와 나무꾼'을 통해 본 한국의 문화」에서 한국의 정신문화 요소를 추출하였다. 이외에도 오정미(2008), 양지선(2009)도 설화 <선녀와 나무꾼>을 통해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문화교육, 문화적응에 대하여 논하였다. 이외에도 양민정(2010), 「결혼 이주 여성교육을 위한 한국설화의 여성성 연구」, 양민정(2011)의 「효부 설화를 활용한 결혼 이주여성의 가족의식 교육 방안 연구」 등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동화 차원의 문학교육 연구를 지속적으로 발표하였다.
- 3) 통합을 바탕으로 한 다문화교육에서의 문학교육 연구는 다음과 같다. 이명현(2011)의 「다문화시대 이물고혼담의 해석과 스토리텔링의 방향」처럼 문학작품을 스토리텔링하여 한국사회 주류의 인식전환을 목표로 한 통합의 다문화교육 연구가 발표되었다. 임경순(2011)이 「다문화 시대 소설(문학)교육의 한 방향」에서 기존의 다문화소설, 다문화 문학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제기한 것과 같이 다문화문학에 대한 비판적 연구가 다수

상으로 확대되는 변화를 가졌고 한국문화에서 각국의 문화에 대한 이해로 교육 목표가 바뀐 것이다. 그러나 다국적의 문학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매우 미미한 부분만 차지할 뿐, 실제로는 한국 문학작품을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하여 소개하고 정보를 주는 동화형태의 문학교육에서 진일보한 발전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호문화교육의 관점에서 보면 통합을 바탕으로 한 문학교육은 상호문화교육으로 가기 위한 과도기의 단계로 유의미한 과정이었다고 판단된다.

과도기 단계 후 상호문화교육에서의 문학교육이 등장하였고 한국과 다국적의 문학을 비교문학적으로 접근하는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⁴⁾ 한국과 함께 다국적의 문학작품을 서로 비교하여 각 민족 사이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상호문화교육에서의 문학교육으로, 학습자도 이주민과 정주민으로 분류하기보다 한국을 비롯한 다국적의 사람들로 그 대상이 확대되었다. 다문화사회에서의 문화적 갈등은 이주민과 정주민 관계뿐 아니라 다국적의 이주민 사이에서도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상호문화교육에서 학습자는 한국을 비롯한 다국적의 사람들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 목표와 방향 그리고 학습자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다문화사회에서 상호문화교육은 이상적인 교육임에는 분명하지만, 사실, 밝은 문학교육의 미래를 기대하기란 쉽지 않다. 상호문화교육에서의 문학교육도 동화

이루어졌는데, 이 역시 통합의 다문화교육과 방향을 함께 한다. 그리고 양민정(2012)은 각국의 <선녀와 나무꾼>을 비교하여 다문화가정의 가족의식을 비교 고찰하였다. 오정미(2017)는 이주민 설화를 통해 이주민과 정주민 대상의 문화교육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통합의 다문화교육의 방향을 제시한 연구들이 2010년 전·후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발표 중이다.

- 4) 상호문화교육 속에서의 문학연구는 다음과 같다. 이가원(2019)은「비교문학 관점에서 본 설화의 한국어 문화교육적 의의와 가치 연구 - 한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의 흥부놀부형 설화를 중심으로」에서 한국을 중심으로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의 흥부놀부형 설화를 비교 고찰하여 각국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문화적으로 살펴보았다. 오정미(2020)는「상호문화교육을 위한 아시아 설화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이해 : 베트남 설화를 중심으로」에서 한국 다문화사회에서 이주민이 구술하는 설화의 상호문화교육적 가치에 대하여 다층적인 면에서 살펴보고 있다. 조하연(2020)은「상호문화교육에 기반한 춘향전 교수·학습 방안 연구 : 한국어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에서 한국의 고전소설 춘향전을 통해 상호문화교육의 구체적 교육 사례를 제시하였다.

및 통합 방향의 문학교육처럼 몇몇의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과정이 구축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다문화사회에서의 문학교육이 연구되어 왔지만, 대표 이론서가 뚜렷하게 없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문학만큼 민족의 경계없이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게 하는 매개체는 없을 텐데, 아직도 다문화사회에서 문학교육은 표류 중이다. 마찬가지로 상호문화교육에서의 문학교육도 상호성과 간문화성을 바탕으로 한 문학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이론이 구축되지 않는다면 방향성을 잃은 채 표류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호문화교육을 위한 문학교육의 방법론 구축을 위하여 문학교육의 의미를 정리하고, 문학작품 선정과 교육 내용 및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많은 문학작품 중에서도 설화를 비롯한 속담, 민간신앙을 모두 포함한 구비문학을 통해 방법론을 구축하는 데에는 무엇보다도 구비문학이 가진 세계 보편의 문화적 속성 때문이다. 세계 보편의 문화성이란 세계인들이 연대하여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를 의미하며, 이러한 세계 보편의 문화가 구비문학만큼 정통성을 가진 채 서사화된 양식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다양한 문학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 구축을 위해서는 많은 작품을 토대로 했을 때 신뢰성과 타당성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자는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의 구비문학을 조사 연구한 바 있고, 이에 1493편의 자료가 확보된 상태이다.⁵⁾ 기수행된 연구사업을 통해 방대한 구비문학 자료가 이미 확보된 점도 중요한 선택의 이유이다. 다만, 1493편의 다국적 구비문학 자료 모두가 상호문화교육에서의 문학교육을 위해 필요한 자료는 아니기에, 본 연구에서는 대표성을 가지는 작품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상호문화교육에서의 문학교육의 방법론을 구축하고자 한다.

5) 본 연구자는 2016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주관하는 2016년 토대기초연구사업인 <다문화시대 한국학을 위한 이주민 설화 구술자료 DB 구축>에 참여하여 이주민의 구비문학을 조사한 바 있다. 이주민이 구술한 각국의 구비문학이 문학교육의 방법론 구축을 위한 주요 자료임을 밝힌다.

2. 상호문화교육에서의 문학교육의 의미와 방향

2.1 상호문화교육에서의 문학교육 의미

다양한 국적의 민족들이 초국적 공동체를 만드는 다문화사회가 되면서 문화는 핵심적인 키워드가 되었다. 다문화교육은 기존의 초·중·고등부에 서처럼 연령으로 교육 내용이 구성되는 것과 달리 국적 혹은 이주민과 정주민의 분류, 즉 문화적 배경에 따라 교육 목표와 내용이 구성된다. 그래서 다문화사회에서 문학교육도 기존의 문학교육과 다를 수밖에 없다. 전통적인 문학교육의 목표가 문학 능력을 기르는 것과 언어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다문화사회에서 문학교육은 본연의 문학교육의 의미와 함께 다양한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목표로 한다. 다문화사회 전에 풍부한 상상력과 정서를 함양하는 데 문학교육의 목표를 두었다면 상호문화교육에서의 문학교육에서는 다국적의 문화 간 상호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문학교육의 목표인 것이다.

그러나 다문화사회에서의 문학교육은 여전히 정확한 정체성이 수립되지 못한 채 문학교육인지 혹은 문화교육인지와 같은 혼란의 중심에 있다. 본연의 문학교육이 아니라는 점, 문학작품이 목적이 아닌 도구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이주민과 정주민 대상의 문학교육을 문학교육이 아닌 문화교육으로 보는 견해들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문화 시대에 문학교육에 관해 언급한 연구를 인용하면 문학교육은 일종의 ‘문화의 교육’이라 할 수 있다.

문학교육은 문학과 더불어 자아를 발견하고 세계를 인식하며 현실과 상상력의 세계에 있어서의 모든 가능한 모델, 즉 바람직한 것과 미래 지향적인 것 등을 구축하는, 일종의 문화의 교육이다(송희복, 2012:168).

자아를 발견하고 세계를 인식하는 등의 미래 지향적인 것 등을 구축하는 문학교육을 일종의 문화교육으로 본 해석은 본 연구의 입장이기도 하다. 인간의 삶이 하나의 문화이고 인간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문학이라는 점에서

문학교육을 문화의 교육으로 봤기 때문이다. 특히, 단편적인 정보 차원의 문화가 아닌 인간의 삶과 관련한 각국 문화에 대한 비교와 분석이 내용이라면 문화가 강화된 이주민과 정주민 대상의 문학교육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문학교육인 것이다. 다만, 사회의 변화에 따른 문학교육의 변화를 수용하여 문학 능력과 언어 능력 그리고 문화 능력을 함양하는 다문화사회에서의 문학교육에 대한 개념을 이론화할 필요가 남아있는 것이다.

개념을 이론화하는 관점에서 상호문화교육에서의 문학교육을 살펴보면, 상호문화교육에서의 문학교육이란 기존의 문학교육에 문화 능력 함양을 강화한 것이다. 또한 동화와 통합 차원의 다문화교육에서의 문학교육과 상호문화교육에서의 문학교육이 다르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상호문화교육에는 다문화교육에는 없는 동태적인 활동성, 즉 사람과 사람 나아가 문화와 문화 사이의 움직임을 의미하는 관계가 존재한다. 다문화교육에서의 문학교육이 문학작품 속에서 하나의 문화를 소개하고 학습시키는 문화 능력을 키우는 것이라면, 상호문화교육에서의 문학교육에서는 하나와 또 다른 하나의 문화를 소개한 후 그 속에서 유추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의 흐름과 삶의 연속성을 이해하여 새로운 관계를 발견하는 것이 교육 목표이다. 따라서 상호문화교육에서의 문학교육이란 삶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다국적 문화의 관계로, 같음 속에서 다름을 발견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름 속에서 같음을 발견하는 것이다.

2.2 상호문화교육에서의 문학교육 방향

상호문화교육에서의 문학교육에서는 다국적의 문학작품이 텍스트로 제시되어야 한다. 한국문학작품뿐 아니라 타문화를 배경으로 한 다국적의 문학작품을 소개하고 학습하는 것은 상호문화적 문학교육에서의 필수 조건이다. 상호문화교육이 가장 잘 발달한 독일의 상호문화적 문학교육 수업을 살펴보면, 과거 18세기부터 최근의 작품까지 다양한 국적의 아동 청소년 작품이 국어 교과서 텍스트로 선정되어 있다(김정웅, 2017:104-105). 문학작품을 통해 자연스럽게 다양한 국가의 낯선 문화를 소개하여 다문화 시대 속의 상호

공존을 학습하는 것인데, 사실 이러한 과정에는 문화간 비교라는 학습이 숨어 있다. 학습자는 낯선 국가의 문학작품을 접하며, 무의식적으로 자국의 유사한 작품 혹은 상반된 작품을 떠올리며 원문화를 자각하는 과정을 경험한다. 즉 상호문화교육에서의 문학교육에서는 기본적으로 두 개 이상 국적의 문학작품이 표면적 혹은 이면적 차이만 있을 뿐, 사실은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작품 간의 비교가 전제된다. 비교를 통해 시공간을 초월한 각국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목표로 한 것이 상호문화교육에서의 문학 교육인 것이다. 그렇다면 상호문화교육에서의 문학교육이 전하는 새로운 이해란 무엇일까?

첫째, 초국적 세계관에 대한 이해

다문화사회란 국적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아가는 사회이다. 탈경계화의 세계가 다문화사회인 것인데, 아이러니하게도 다문화사회에서는 사람들의 자국, 즉 함께 모여 살기 전의 국적이 더욱 부각되고, 그 국적이 낙인처럼 사람들을 따라다닌다. 한국 사람, 중국 사람, 베트남 사람, 필리핀 사람처럼 국적이 그 어느 때보다도 사람들의 신분이 되어, 즉 계급화되는 현상이 나타나며 문화갈등이 발생한다. 이러한 시점에, 문학, 특히, 이 연구의 텍스트인 구비문학의 비교를 통해 사람들은 초국적 세계관을 경험한다. 다르다고 생각한 국가나 민족의 문학작품 속에서 동질성과 같은 같음을 발견하며 세계인으로서의 공존 나아가 초국적 세계관을 학습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라는 연대의식은 곧 초국적 세계관의 형성이자 이해이고, 초국적 세계관은 상호문화교육에서의 문학교육의 첫 번째 교육 방향인 것이다.

둘째, 개별적 존재로서의 존중

국적을 초월하여 서로의 통합과 화합을 지향하는 사회가 다문화사회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현실에서는 국적이 더 강조되고 계급화되어 있으며 독립된 인격체로서의 개인에 대한 평가가 이주민에게는 정당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예를 들면, 이주민들은 한 명의 개인으로서 존중받지 못하고 그들이 속해 있던 자국, 즉 국적으로 종종 평가받아 왔다. 동남아시아 국적을 가졌다는 이유로, 많은 동남아시아의 이주민들은 개개인의 학력과 특성 등과 상관없이 가난, 팔려온 여자와 같은 편견 속에 놓여 있다. 물론, 이러한 상황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독일의 8학년 과정의 국

어 교과서에 실린 <둘을 위한 스파게티>라는 단편소설을 보면, 독일 학생 하인츠가 흑인 학생 마르셀을 보며, 마르셀이 자신의 스프를 훔쳐 먹는다고 오해한다. 사실 하인츠가 주문한 스프는 그 옆 테이블에 있었지만, 하인츠는 마르셀이 흑인 학생이라는 이유로 선입견과 편견 속에서 마르셀을 비난한 후에 자신의 오해를 깨닫는다(김정용, 2017:114). 하인츠의 오해는 독일인이 가지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자기 고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소설 속 하인츠는 한국에도 살고 있다. 이름을 가진 개별적인 존재로서 이주민을 존중하기보다 피부색과 국적을 보며 이주민을 선입견과 편견 속에서 평가하는 하인츠는 우리 안에도 살고 있다. 어느 결혼 이주여성의 말을 인용하자면, 그녀들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너 어느 나라에서 왔니?”이고, “너희 나라에는 이런 거 없지?”라고 한다. 물론, 시골 할머니들의 투박한 관심의 표현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질문은 한국인들이 이주민에게 가진 선입견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직 국적을 통해 가난해서 팔려왔다는 식의 평가를 하거나 혹은 시혜적 태도로 그녀들과 관계 맺기를 하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

그래서 국적과 인종이 아닌 개별적인 존재, 마르셀을 흑인 소년이 아닌 마르셀로 보는 사회 분위기, 즉 타자를 개별적 존재로서 존중하는 태도는 다문화사회에서 학습해야 하는 자세로 상호문화교육에서의 문학교육은 소통, 공감, 감동 등의 인지적 활동을 통해 각국, 특히, 동남아시아권의 이주민을 개별적 존재로서 존중하도록 도울 것이다. 문학작품은 그 속에서 발현되는 감동, 소통 등과 같은 상호작용으로 타자에 대한 내면적인 이해를 가능케 하고, 이를 통해 학습자가 타자를 개별적인 존재로서 존중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3. 상호문화교육에서의 문학교육의 실제

‘타자에 대한 이해, 공존, 자민족중심주의에서의 탈피, 상호문화능력 신장’과 같은 표현은 모두 상호문화교육의 목표이다. 상호문화교육에서의 문학교

육도 위에서 언급한 목표와 다를 바 없다. 다만, 문학교육을 통하여 실천하는 상호문화교육은 사람의 삶의 이야기로 접근하여 사람과 사람, 민족과 민족 그리고 문화와 문화 사이의 관계 속에서 타자에 대한 이해, 공존, 자민족 중심주의에서의 탈피, 상호문화능력 신장을 실천한다. 범박하게 말해, 문학은 곧 사람의 삶의 이야기이고, 각국의 문학작품 속에서 학습자는 나의 삶과 함께 타자의 삶을 보며 상호문화교육의 목표를 자연스럽게 경험해갈 것이다.

그렇다면 문학작품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상호문화교육을 실천할 수 있을까. 장한업이 서구의 여러 학자들의 이론을 바탕으로 정리한 상호문화교육의 방법인 1단계 자문화 인식 단계, 2단계 타문화 발견, 3단계 양문화 비교의 과정(장한업, 2014:154)은 문학교육의 방법론을 구축하는 본 연구에도 좋은 나침반이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1단계 자문화의 인식, 2단계 양문화의 비교, 3단계 자문화의 재인식, 마지막으로 4단계 타문화의 발견으로, 재설계하였고 이 과정을 바탕으로 문학교육을 실천하고자 한다. 그래서 앞서 언급한 바처럼, 기수행된 연구사업을 통해 확보한 1493편의 다국적의 구비문학 자료를 바탕으로 상호문화교육에서의 문학교육의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교육 과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작품 선정과 교육 내용 및 교육 방안을 설계하여 광범위한 문학작품에 적용할 수 있는 상호문화교육에서의 문학교육 방법론을 구축하고자 한다.

3.1 상호문화교육을 위한 문학작품의 선정

양국 문화의 비교를 통해 자문화에 대한 인식과 타문화에 대한 발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국적의 문학작품이 최소한 2편 이상 텍스트로 제시되어야 상호문화교육에서의 문학교육이 가능하다. 전통적인 문학교육이 한편의 문학작품 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라면 상호문화교육에서의 문학교육은 최소 2편 이상의 문학작품의 비교 속에서 교육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다만, 학습자 자국의 문학작품이 텍스트로서 표면적으로 제시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내포적 제시도 가능하다. 타국의 낯선 문학작품이 표면

적으로 반드시 제시되어야 하는 것과 달리 자국의 문학작품은 학습자의 내적 활동을 통해 비교하며 학습할 수 있기에 내포적으로도 학습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문학작품을 선정하는 기준이 반드시 필요하다. 교사 임의로 선택하는 문학작품은 결국 교육 내용과 방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상호문화교육에서의 문학교육은 여전히 낮설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 글에서 제시하는 작품 선정의 기준은 구비문학뿐 아니라 다양한 문학작품에 두루 적용할 수 있는 작품 선정의 기준이고, 그것은 문학작품의 공통 소재·주제·서사이다. 자문화에 대한 인식과 타문화에 대한 발견은 양국 문화의 같음을 시작으로 구현될 수 있다. a와 b의 비교란 결국 같음을 바탕으로 할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학작품 속 사람의 삶의 이야기에서 같음을 발견하고 다시 그 속에서 각국 고유의 특수한 문화 즉 차이, 낯섦도 발견하는 과정, 그 과정이 문학작품을 통한 상호문화교육인 것이다.

1493편의 다국적의 구비문학 자료를 토대로 공통 소재·주제·서사로 선정한 몇 편의 작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⁶⁾

먼저, 공통 소재이면서 동시에 공통 주제의 다국적 효행담이다.

<표 1> 공통의 소재 및 주제의 다국적 설화

[공통 소재 및 주제] 하늘을 감동시킨 효			
어머니를 구원한 아들의 효심	설화	베트남	누구엔티미두이엔(여, 89生)
아내 개심시킨 효자의 지혜	설화	몽골	수호바타르알탄바가나(여, 66生)
아내 개심시킨 효자의 지혜	설화	베트남	응웬후우통(남, 86生)
어머니의 병환 서신 받은 세 자매	설화	베트남	땡티름(여, 83生)
어머니 구제한 효녀 올란	설화	베트남	호티홍녀(여, 86生)

6) 대표 작품으로 제시하고 있는 다국적의 설화는 본 연구자가 지난 3년간 (2016.09-2019.08)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구비문학 자료(설화, 민속, 속담, 수수께끼)이다.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이 구술한 자국의 효행담을 상호문화적 관점에서 비교 분석하면, 우선 효가 가진 다국적 사람들의 공통적인 세계관을 확인할 수 있다. 국적과 상관없이 모든 효행담은 효의 인류적 가치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통의 소재 및 주제인 효행담은 초국적 세계관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효는 세계 보편의 공통적인 가치문화이지만 설화를 통해 효를 실천하는 주체자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한국의 대표 설화집인 <한국 구비문학대계>를 살펴보면, 여러 소재 혹은 주제의 설화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설화가 효행담이고, 효행담에서 효를 실천하는 주체자로 종종 등장하는 인물이 며느리이다. 즉 효자와 효녀뿐 아니라 효부가 한국의 효행담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러한 설화의 특징은 한국의 며느리 문화에서 기인하다. 전통사회에서 딸과 며느리들에게 남긴 제문과 묘지문을 살핀 연구를 인용하면, 여성들은 딸이기보다 시댁에서의 며느리로서의 삶이 중요하게 서술되어 있었다고 한다(이미진, 2017). 그만큼 결혼 후의 삶인 며느리로서의 삶이 여성의 삶에서 가장 중요했고 시부모 봉양뿐만 아니라 시댁 식구 전체를 보살피는 등의 효의 실천은 사회가 요구하는 여성의 삶, 즉 며느리의 삶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아들과 딸 이상으로 며느리의 효행담이 많이 전승되었고, 이것은 비단 설화 편수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사회가 요구하는 며느리의 삶을 반영한 것으로, 설화를 통해 한국의 효문화와 며느리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반면, 채록된 베트남과 몽골의 효행담의 주체자는 모두 아들과 딸이다. 몽골과 베트남에서 채록된 설화 <아내 개심시킨 효자의 지혜>도 결국 며느리가 아니라 며느리를 효부로 만든 효자 아들의 이야기이다. 이처럼 공통 소재와 주제는 상호문화교육에서의 문학교육을 위한 선정 기준으로 타당성 있는 중요 항목으로 확인된다.

설화 외에 또 다른 구비문학인 속담과 민간신앙을 통해서도 상호문화교육이 가능하다. 민간신앙과 속담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보유하고 있는 구비문학 중 하나로, 상징적 화소로서 다양한 각국의 보편 및 특수한 문화를 쉽게 전달한다. 설화와 마찬가지로 공통의 소재와 주제에 따라 민간신앙과 속담을 선정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공통 소재 및 주제의 민간신앙과 속담

민 간 신 앙	① [한국] 문지방을 밟으면 안 된다	① [카자흐스탄] 문지방을 밟으면 안 된다
	② [한국] 망태 할아버지	② [사우디아라비아] 옴 알 아바야
속 담	① [베트남] 비가 온 후에 무지개가 뜬다	① [필리핀] 비가 온 후에 무지개가 뜬다
	② [태국] 죽은 코끼리를 연꽃잎으로 덮을 수 없다	② [필리핀] 말이 죽었는데 지푸라기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주민이 구술한 각국의 구비문학 자료 중에는 쌍둥이처럼 닮은 문학작품이 많다. 그것은 민간신앙과 속담으로, 똑같은 주제를 전달하는 민간신앙과 속담, 심지어 표현까지 똑같은 경우가 종종 있다. 예컨대 ‘문지방을 밟으면 안 된다’는 한국의 민간신앙은 위에 제시한 카자흐스탄을 비롯하여 몽골, 중국 등에서 똑같이 전승되고 있었다. 똑같은 주제와 표현을 하는 구비문학 자료 속에서 학습자들은 국적을 초월한 세계인으로서의 연대감을 경험하게 되며 초국적 세계관을 학습할 수 있다.

공통의 주제이지만 표현이 다른 경우도 많다. 이미 잘못된 뒤에는 손을 써도 소용이 없다는 의미로 한국에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담이 있다. 같은 주제로 태국에는 ‘죽은 코끼리를 연꽃잎으로 덮을 수 없다’ 그리고 필리핀에는 ‘말이 죽었는데 지푸라기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가 있다. 이렇게 공통의 주제를 가진 속담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국경, 인종 등을 초월하여 사람들은 삶 속에서 뒤늦은 후회를 하는 어리석은 상황을 종종 마주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뒤늦은 후회를 경계하는 표현을 만들어 전승하였던 것인데, 상호문화교육의 관점에서 주목되는 점은 표현의 차이를 통해 개별적 존재로서의 각 민족의 특수함을 학습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소와 외양간, 태국에서는 코끼리와 연꽃잎, 필리핀에서는 말과 지푸라기를 통해 표현한 공통 주제의 속담은 학습자에게 각 민족의 자연 및 생활문화를 전달할 것이다. 이처럼 공통의 소재와 주제는 상호문화교육에서 문학작품을 선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라 할 수 있다.

공통 소재와 주제에 이어 공통 서사도 상호문화교육을 위한 문학작품의

중요한 선정기준이다. 세계에는 국적을 초월한 공통 서사를 가진 설화, 즉 세계 광포 설화가 많다. 예컨대, 대표적인 세계 광포설화인 <선녀와 나무꾼>의 공통 서사는 다음과 같다.

- 지상에서 사는 가난한 남성이 있다.
- 남성은 천상의 여인과 혼인하기 위하여 여인의 날개옷을 훔친다.
- 여인은 천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남성과 혼인하여 아이(들)를 낳고 지상에서 산다.
- 날개옷을 되찾은 여인이 천상으로 되돌아간다.
- 남성은 지상에 남는다.

세계의 <선녀와 나무꾼>은 위의 주요 스토리를 공통 서사로 가지고 있다. 다만, 각국 문화의 차이에 따라 남성의 직업이 다르고, 등장하는 인물이 조금 다를 수 있으며 구비문학의 성격상 전승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여러 버전의 이본을 만들기도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상의 남성과 천상의 여성이 혼인하는 서사로, 그 과정에서 남성이 여성의 날개옷을 훔치고 결국 여성이 천상으로 되돌아가는 서사는 바뀔 수 없는 세계 공통의 서사이며 작품 선정의 기준이 된다.

이와 같은 공통 서사의 설화는 그동안 비교문학연구자들에 의해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 왔으며, 이주민 설화 조사를 통해서도 <선녀와 나무꾼>, <콩쥐팍쥐>, <열두 띠 유래> 등이 중국, 베트남, 일본, 몽골, 카자흐스탄 등에서 공통으로 전승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 공통 서사의 다국적 설화

한국<선녀와 나무꾼>					
중국<우랑 직녀>		일본<우의 소녀>		베트남<선녀 아즉과 나무꾼 장유>	
한국<콩쥐 팥쥐>					
중국<황금구두 한 짝을 잃어버린 예센>		일본<의붓자매 고메 부꾸와 아와부꾸>		베트남<땀과 값> 타지키스탄<자매 주무랏과 큰맛>	
한국<열두 띠 유래>					
몽골<낙타가 열두 띠에 들지 못한 이유>		일본<고양이가 열두 띠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중국<열두띠 동물과 천적> 홍콩<귀가 열두 띠의 첫 번째가 된 이유> 캄보디아<돼지가 마지막 띠에 들어간 이유> 카자흐스탄<여섯개의 동물 띠가 있는 이유>	

공통 서사의 설화는 공통점뿐 아니라 각국의 문화에 따른 차이점이 존재하고, 이 부분이 상호문화교육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예컨대, 한국의 <선녀와 나무꾼>에는 다른 국가에는 등장하지 않는 노모가 존재하고, 이를 통해 한국의 특수한 가족문화를 고찰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이주민 설화 조사에 의하면 베트남과 캄보디아의 <빈랑나무 유래담>처럼 동남아시아 국가 간의 공통 서사로 전승되는 설화가 다수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공통 서사의 광포설화는 한국에 거주하는 서로 다른 국적의 이주민과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상호문화교육에서 좋은 텍스트가 될 것이다.

공통의 서사로 비교할 수 있는 문학작품은 설화 외에도 고전 및 현대소설, 시 등, 그 범위가 다양하고 문학 양식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비교 고찰할 수 있다. 예컨대, 남녀의 사랑 속에 신분의 갈등이 주요 서사인 한국 고전소설 <춘향전>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전설 <안타라와 아블라>⁷⁾를 비교할 수 있다.

7) <안타라와 아블라>는 이주민 설화조사에서 조사된 사우디아라비아의 전설로, 아랍계 사람들이라면 대부분이 알고 있는 유명한 남녀의 사랑 이야기이다. 노예 출신의 어머니를 둔 안타라와 귀족의 딸 아블라의 안타까운 사랑 이야기로 두 남녀는 가족의 반대로 이별한다. 그 후 안타라는 시인이 되었다. 그 안타라의 시들이 현재까지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에게 향유되고 있다.

이와 같이 공통의 소재와 주제 그리고 서사는 상호문화교육에서 문학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작품 선정의 중요한 기준이다. 교육 현장에서 실제적인 상호문화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텍스트로 선정할 문학작품의 기준이 방법론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점에서 이주민의 다국적 구비문학을 바탕으로 작품 선정의 기준을 모색하였다.

3.2 상호문화교육을 위한 문학교육의 내용 및 방안

기준을 토대로 선정된 문학작품은 작품 간의 비교, 분석, 토론 등의 과정을 통해 자문화를 인식하고 타문화에 대하여 공감하며 존중하는 상호문화교육을 위한 텍스트가 될 것이다. 이제 선정기준을 토대로 한 작품 속에서 구체적인 교육 내용에 관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문학작품의 간의 비교 역시 추상적 담론이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비교할지 교육 내용과 교육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본 연구자는 문학으로 접근하는 상호문화교육의 내용으로 ‘가치문화·자연문화·생활문화·역사문화’를 제시한 바 있다(오정미, 2020:1289).

<표 4> 상호문화 교육 내용

- ▷ 가치문화: 각 민족의 세계관, 가치관 등을 의미하며 효행담, 지혜담 등
- ▷ 자연문화: 각국의 생태환경 즉 동식물 관련 설화로 동물, 산, 바다 등과 관련한 설화로, 지명 전설 등
- ▷ 생활문화: 각국의 풍습과 생활을 의미하며, 명절, 민속(악기, 노래 등)과 관련한 설화 등
- ▷ 역사문화: 민족을 대표하는 영웅과 역사적 사건을 의미하며, 영웅설화와 민족 신화 등(오정미, 2020:1289).

가치문화·자연문화·생활문화·역사문화는 문학작품을 통해 상호문화교육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육 내용으로, 낯선 문화적 배경을 가진 타자의 민족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그래서 작품 간의 비교를

통해 각 민족의 삶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며 자연스럽게 각국의 가치문화와 자연문화, 생활문화, 역사문화를 학습하는 것은 타자에 대한 공감과 존중이라는 상호문화교육의 목표를 성취시킬 것이다. 구체적으로 교육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교육 방안은 다음과 같다.

<표 5> 상호문화 교육 방안

1단계	공통 소재의 작품 선정
	‘전쟁’소재의 작품 선정
2단계	각국의 작품 비교 감상
	[필리핀] 마까히야 유래담 [카자흐스탄] 코르트 과자로 나눈 인정 [베트남] 남섬이라는 지역에 사는 여자
3단계	각국의 작품 속 역사문화의 이해
	[필리핀]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필리핀 역사 [카자흐스탄] 강제 이주한 고려인과의 동거동락한 카자흐스탄 역사 [베트남] 강대국과의 전쟁으로 가족의 해체를 경험한 베트남 역사
4단계	역사문화를 통한 타자에 대한 공감과 존중
	각국의 전쟁 트라우마에 대한 이해와 공감

우선, 공통 소재가 ‘전쟁’인 설화를 선정한다. 역사적으로 전쟁과 식민지를 경험한 바 있는 필리핀과 베트남 등의 국가들은 다양한 상징성을 가진 화소를 통해 전쟁에 관한 설화를 전승하고 있었다. 필리핀의 <마까히야 유래담>은 스페인 군인을 피해 산속에 숨은 필리핀 소녀에 대한 설화이다. 소녀가 두려움으로 인해 사람의 손이 닿으면 잎사귀가 닫히는 마까히야 식물이 되었다는 이야기로, 실제로 마까히야는 그 소녀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으며 현재 필리핀에서는 마까히야 유래담으로 전승되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코르트 과자로 나눈 인정>은 전쟁으로 인해 강제 이주를 당한 고려인을 돕는 카자흐스탄인들의 관한 설화이다. 베트남의 <남섬이라는 지역에 사는 여자>는 전쟁으로 인해 헤어졌던 부부가 재회하였지만, 공백의 시간을 극복하지 못한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여 결국 비극적으로 가정이 해체되는 이야기

이다. 이러한 전쟁에 관한 필리핀, 카자흐스탄, 베트남의 이야기는 사실 한국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한국도 역사적으로 주변 강대국에 의해 많은 전쟁을 겪었고, 6.25 전쟁이라는 비극적인 역사를 경험한 국가이다. 그래서 전쟁이라는 공통 소재의 다국적 문학작품의 비교는 학습자들이 자국의 전쟁이라는 아픈 역사를 떠올리며 동시에 공감 속에서 타문화를 이해하게 하여 상호문화 학습을 하게 만든다. 즉 자문화에 대한 인식과 함께 타문화의 역사를 학습하는 2·3단계의 교육 과정을 거치면서 공감과 존중이라는 최종적인 상호문화교육 목표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이 글에서 제시하는 문학작품을 통한 상호문화교육은 정보전달 차원의 일방적인 교육이 아니라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개방된 열린 교육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있는 교육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4. 결론

상호문화교육은 다문화사회 속 교육의 변화 및 발전을 보여주는 결과물이다. 이주민을 한국문화 속에 일방적으로 흡수하고자 했던 동화형태의 다문화교육을 시작으로 하여, 다양한 국가의 문화를 인정하고자 한 통합형태의 다문화교육 그리고 국가 및 민족 간의 관계 속에서 타자를 이해하고자 한 상호문화교육까지, 한국의 다문화사회는 끊임없이 교육의 변화를 시도하였다.

국가 및 민족 간의 관계 속에서 타자를 이해하고자 한 상호문화교육은 사실 기존의 문학교육과 크게 다를 바 없다. 독자들은 문학작품 속 인물들, 즉 타자와 관계를 맺으며 낯선 세계를 경험하고 낯선 문화를 이해하는데, 민족과 민족 간의 관계라는 동태적 활동성을 이해하는 상호문화교육과 문학교육이 매우 닮아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호문화교육과 문학교육의 교차점을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는 상호문화교육에서의 문학교육이 무엇인지 그 개념을 정리하고 문학교육을 실천할 구체적인 방법론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자가 선행 연구로 수집한 이주민 자국의 구비문학 자료를 방법론 구축을 위한 텍스트로써 활용하였다.

먼저, 상호문화교육에서의 문학교육 방법론을 구축하기 전에 문학교육의 의미에 대하여 2장에서 정리하였다. 상호문화교육에서의 문학교육이란 기존의 문학교육에 문화 능력 함양을 강화한 것으로 그 개념을 정의하였다. 문화 능력 함양은 정보 차원의 문화 내용이 아니고 사람과 사람, 민족과 민족 사이의 문화적 같음과 다름을 의미한다. 그래서 상호문화교육에서의 문학교육에서는 다국적의 문학작품을 서로 비교하여 각국 문화의 같음과 다름을 통해 초국적 세계관과 개별적 존재로서의 존중을 학습자에게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문학교육의 개념을 바탕으로 3장에서는 방법론 차원에서 문학작품 선정의 기준과 교육 내용 및 방안을 구축하였다. 선정의 기준으로 제시한 것은 문학작품 간의 공통 소재, 공통 주제, 공통 서사로, 공통점 속에서 서로의 관계를 비교 분석하여 각국의 문화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문학작품들은 가치문화, 자연문화, 생활문화, 역사문화를 토대로 교육 내용이 구성된다. 제시된 4가지 항목은 문학작품을 통해 쉽게 학습할 수 있는 문화 내용이며 동시에 상호문화교육 차원에서 서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교육 내용이다. 그리고 교육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교육 방안은 총 4단계로 구성하였다. 1단계 문학작품 선정을 시작으로 하여, 2단계 작품의 비교와 감상, 3단계 작품 속 문화 항목(가치문화, 자연문화, 생활문화, 역사문화)분석, 최종적으로 4단계에서 타문화에 대한 공감과 존중이라는 상호문화교육 목표에 도달하게 된다.

이 연구에서 구축한 작품 선정의 기준과 교육 내용 및 방안은 구비문학 뿐 아니라 상호문화교육을 위한 문학 전반에 두루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서 접근한 것이다. 물론, 완전하게 정립된 이론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이에 본 연구는 방법론 구축을 위한 단초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앞으로 본 연구자는 이주민의 구비문학 자료를 공통 소재, 공통 주제, 공통 서사별로 분류하여 상호문화교육에서의 문학교육의 길을 꾸준히 모색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고경민(2020) 동화를 활용한 상호문화 감수성 교육 방안 연구 -유학생 대상의 플립드 러닝 방식을 중심으로-, 『동화와 번역』, 39, 건국대학교 GLOCAL(글로벌) 캠퍼스 동화와번역연구소, 39-62.
- 김정용(2017) 『아동 청소년 문학과 상호문화교육』,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김정우(2020) 상호문화적 관점에서 본 한국문화교육의 방향—문학작품 번역과 해석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 68집, 한중인문학회, 165-189.
- 송희복(2012) 진주교대 다문화교육관에 있어서의 문학교육의 유형 및 성격, 『국제어문학』, 25권, 국제어문학회, 167-184.
- 안미영(2008) 한국어 교육에서 설화 문학을 활용한 문화 교육: ‘선녀와 나무꾼’을 통해 본 한국의 문화, 『정신문화연구』, 31-4, 한국학중앙연구원, 107-130.
- 양민정(2010) 결혼 이주 여성 교육을 위한 한국설화의 여성성 연구, 33, 『세계문학비교연구』, 37, 한국세계문학비교연구학회, 5-27.
- 양민정(2011) 효부 설화를 활용한 결혼 이주여성의 가족의식 교육 방안 연구, 『세계문학비교연구』, 37, 세계문학비교연구학회, 123-148.
- 양민정(2012) <나무꾼과 선녀>형 설화를 비교를 통한 다문화 가정의 가족의식 교육 연구, 『국제지역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 연구센터, 45-65.
- 양지선(2009) 전래동화를 활용한 한국 문화교육 방안: <선녀와 나무꾼>을 이용한 표현교육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32-4, 한국학중앙연구원, 341-361.
- 오정미(2008) 이주여성의 문화적응과 설화의 활용: 설화 <선녀와 나무꾼>과 설화 <우렁각시>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27, 한국구비문학회, 177-210.
- 오정미(2017) 이주민 설화 조사를 통해 본 새로운 다문화교육 방안, 『구비문학연구』, 47, 한국구비문학회, 187-211.
- 오정미(2020) 상호문화교육을 위한 아시아 설화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이해 : 베트남 설화를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6-5,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1281-1298.
- 이가원(2011) 다문화 시대 소설(문학)교육의 한 방향, 문학교육학, 36, 한국문학교육학회, 387-420.
- 이명현(2011) 다문화시대 이물교혼담의 해석과 스토리텔링의 방향, 『우리문학연구』, 33, 우리문학회, 143-170.
- 이미진(2017) 조선시대, 딸에서 며느리로 살아가기, 『대동한문학』, 53, 대동한문학회, 195-228.
- 장한업(2014) 이제는 상호문화교육이다: 다문화 사회의 교육적 대안: 교육과학사.
- 장한업(2017) 유럽의 상호문화교육 지침서 비교 연구, 『비교교육연구』, 한국비교교육학회, 27-1, 199-222.
- 조하연(2020) 상호문화교육에 기반한 춘향전 교수·학습 방안 연구 : 한국어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교육문화연구』, 26-5,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1259-1279.

이름: 오정미
직위: 연구교수
소속: 인하대학교
주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112-1502
전자우편: gina2004@naver.com

투고일자: 2021년 1월 5일
심사일자: 2021년 1월 12일
게재확정일자: 2021년 2월 6일